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49년
2020년 6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4년 제 247 호

불기 2564년 불교총지중 종령 법어

동체대비의 등불을 마음속에 환하게



종령 법공 대중사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

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금년 부처님오신날의 봉축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 사랑·나눔·행복·평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란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불교의 마음이며 부처님의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대자비의 가르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慈)는 한량없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고,

미워하거나 성내지 않는 마음이며, 비(悲)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이요, 해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자비심의 꽃으로 온 세상을 장엄한다면 이 자리가 불국토요, 화엄의 세계요, 극락정토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가정, 내 이웃에 자비의 꽃을 피워야겠습니다. 대자비심을 발하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을 진정으로 봉축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예토(穢土)의 세계를 대자비심의 정토(淨土)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사상(史上) 유

래 없는 고통을 지구촌 인류가 거의 동시에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겪으면서 국가와 인종을 불문하고 인류 전체가 한 가족이고 모든 유형무형의 생명체가 하나라는 절실한 체험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同體大悲思想)이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오늘부터 모든 생명체가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가르침과 실천만이 앞으로 인류가 공존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대안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큰 위안이 되고 휴식처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들의 세상에 가득차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모든 이들의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으로 화하여서 일체중생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연등이 치유와 극복의 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불자들

이 동체대비의 등불을 마음속에 환하게 비추어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일상에서 배려와 양보, 자상함과 용서, 이해와 화합, 동정과 따뜻한 위로, 응원과 칭찬, 존중과 선심(善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원만구족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음마니반메흠. 음마니반메흠. 음마니반메흠.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합장

불기 2564년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봉축사

고통과 두려움을 안녕과 희망으로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봉축하며, 삼계 속에서 고통 받는 모든 존재들이 대일 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

에서 편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작금의 팬데믹 시대는 우리의 삶 깊숙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친 파고(波高) 속에서 사회, 경제구조의 변동은 불가피하며, 심지어 정신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전환의 시점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상실, 타인에 대한 혐오의 확산과 신뢰의 약화 등으로 인간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국내의 소비 경제가 둔화되었고, 조업중단의 장기화와 인력 감축 등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칫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탐욕과 혐오, 어리석음의 구조를 더욱 굳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시시(時時) 자비 마음이면 처처(處處)가 연꽃 세상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불자들은 무엇보다 우리의 본심(本心)인 자비의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 생활속 거리두기라는 물리적 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연대로, '거리'를 마음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관계는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고통을 덜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관심과 공감이라는 자비의 씨앗과, 자비의 적극적 실천의 연(緣)을 통해 고통의 해소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과 세상에 자비의 마음과 실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통과 두려움을 안녕과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성도합니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합장

부산·경남교구 국운융창과 국난극복 기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경남교구(교구장: 정인화 전수) 승직자들은 지난 5월 6일 오후 6시송상현광장에서 부산연등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운융창과 국난극복 및 부산발전과 시민

안녕 기원 대정진 릴레이 기도에 동참했다. 정각사 주교 범경 정사의 집공으로 교구장 정인화 전수를 비롯 승직자 10여 명이 참석해 불공정진 했다.

중/조/법/어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지면안내

2면 교계 봉축법어/봉축사
7면 봉축기획 연등회 유래

5면 불교총지중 교구장 봉축사
10면 불만한 불교영화

불교총지중 창종 50년 기념사업 발족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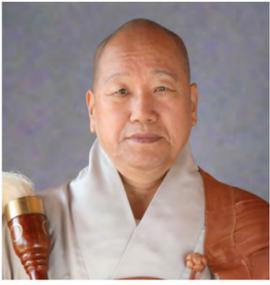
1. 일시 : 총기 49년 6월 9일(화) 오후 2시
2. 장소 : 통리원 반야실
3. 참석 : 교구장, 총무, 종단 50년사 발간 위원, 집행부 외
4. 주요 일정 : 기념사업 원만성취 불공, 위촉장 수여, 사업 설명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불교총지중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 제



생명의 존엄을 천명(闡明)하심이요, 인류에 지혜광명을 비추심이요, 인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을 찾듯이, 혼탁의 시대일수록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인류의 화합과 공생(共生)의 연등(燃燈)을 켜시다. 이웃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으로,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 주는 마음으로, 이웃이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대광명(大光明)의 연등을 켜시다. 금년, 전(全)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질병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그리고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에 전 세계의 대처(對處)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고 과학기술의 무력(無力)함이 드러나면서 동양의 정신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이요,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로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모든 존재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 인간과 자연, 유정과 무정이 우리와 유기적(有機的)관계입니다.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딛지 않고 살아 갈 수 없습니다. 만물은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닙니다.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곧 인류와 지구촌의 위기입니다. 모든 인류들이여! 나고 날 적마다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 진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하고 의심하여 일념이 지속되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밝은 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경영에 앞서가고 진리의 지도자가 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일생이 될 것입니다. 필경에 부처님의 진면목(眞面目)을 알고자 할진대, 이 주장자를 황으로 매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천봉과 만 봉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도솔전에 계시다가 백상(白象)을 타고 마야부인 태중(胎中)에 잉태하시, 10개월 후 오른 쪽 옆구리로 금빛 몸을 나투셨도다. 사방으로 성큼 성큼 일곱 걸음 한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 하심이여! (天上天下 唯我獨尊) 장하고 장하십니다. 부처님의 강생(降生)은 법계만유의 중생을 위한 대자대비의 시현(示現)입니다. 이는 '본래부처'를 선언하심이요,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도 용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오심을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합니다. 세상을 자비로 거두시는 여래 부처님은 언제나 희망으로 오십니다. 윤회와 생사의 세계는 불난 집과 같아 온갖 괴로움이 가득하니 고통 속에서도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끈질긴 집착과 어두운 욕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연

기적 존재임을 깨달아 인연으로 만난 중생들을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연꽃 피워내는 보살의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역경과 시련을 불심으로 견디며 세계평화와 국운 융창을 정성을 다하여 발원하며 기쁨과 감사의 연꽃 등 밝혀 거룩하신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경 정



맞아 사회의 어둠을 밝힙니다. 대지는 여전히 초목을 키우고 세상은 그렇게 못 생명의 놀이터입니다. 중생이 탐욕과 오만을 깨달아 참회하고 청정본성을 밝히면 주객은 저절로 어울리고 못 괴로움은 흔적을 감추어 안락이 깃듭니다. 남의 탓 앞서서 내 허물 고치고 내 자랑보다 남의 칭찬 먼저 합니다. 이념대립과 정쟁政爭이 혼란을 부추겨도 화쟁和靜으로 풀어 안고 상보相補하면 세간사 중생고衆生苦도 정토로 돌아갑니다. 과학기술의 혜택을 미증유로 누리면서 아직도 병변병貧淨은 세력을 더

하고 온 세계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허덕입니다. 심인정법을 밝게 일깨워서 현세의 미망迷妄을 정화하신 진각성존의 원력에 더욱 귀명합니다. 의뢰依賴와 비범非法이 피아彼我를 가르고 노소老少와 빈부貧富의 갈등에 힘듭니다. 그레도 만유는 자타일여自他一如의 동체이거늘 지금 인류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서로 보듬고 화해와 상승相乘의 만다라 사회를 열어갑시다. 진실을 담아 발원하고 부처님 오심을 봉축합니다.

화해와 상보의 사회를 열어갑시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태양은 마냥 동녘을 밝힙니다. 오늘도 부처님 오시는 날 천지의 어둠을 아침 햇살이 밝히듯이 부처님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온하게 하리라三界皆苦我當安之.'는 탄생 일성은 못 중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윤달 4월 초파일에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길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모든 것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세계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교계는 누구보다 빠르게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여 사회적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중략) 올해 들어 우리 종단은 여러 스님들에게 한국 불교의 내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빛나는

유산보다도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도의 뜻을 받들어 종단 집행부가 추진하는 백만원력결집 불사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또 부처님 법을 현대 사회에 회화하는 포교와 복지, 그리고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그것을 실현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불사에 함께 힘쓰도록 합시다. 백만 명의 원력보살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각각 자기 색깔과 향기로 부처님 법을 꽃피우는 화엄불국토를 만들어갑시다. 국민 여러분과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문 덕



'코로나 19'의 고통이 있는 곳에 부처님 오신 뜻이 더욱 밝게 전해지고, 경제불황과 대립 갈등이 있는 곳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더욱 분명히 전해지도록 오색등을 높이 들고 칠보등을 장엄합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일체중생이 원만 덕상을 구족 하였음을 설하시고, 만 생명이 청정한 법신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시방세계가 부처님의 국토요 육도 중생이 부처님의 분신이니, 우리 사는 이곳이 보리도량이요 우리 사는 이 순간이 성불의 바탕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세상은 질병의 공포로 어수선하지만 부처님 정법은 오히려 오락야세를 향해 더욱 밝고 우렁차합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 시대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빛을 밝히고, 삼악도를 끊어 버리는 대자대비의 행원을 펼치며 일체중생의 복락과 해탈을 위해 참회하고 기도합니다. 중생이 아픈 곳에 보살이 아프고 보살이 아픈 곳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 더욱 뚜렷하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 개고 아담안지'의 탄생계가 바로 그 뜻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병고가 사라지고, 일신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성취되니 우리 모두 오색등의 마음 밝혀 시방삼세의 무명을 걷어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의 환희와 축복으로 일체 질병이 소멸하고, 사람마다 나라마다 부처님 무량가피가 무궁무진 드리우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 명



의 공동체 정신에 부처님의 명호로 무한한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계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코로나 19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자는 마음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한 달이나 연기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불교계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가 다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 부처님오신날은 그 어느 해보다 뜻 깊고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3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략)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당신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한 배에 탄 존재입니다. 오늘 맑고 밝고 향기로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광명으로 코로나19 역병은 하루 속히 물러나고 국민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맑게 소멸돼 경제회생과 함께 국민 모두가 이고득락(離苦得樂)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회 성



있는 손길을 서로서로 내밀었습니다. 극한의 위기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베풀고, 돕는 마음으로 희망을 싹틔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키운 새 희망은 점점 더 밝은 빛이 되어 보다 넓은 세상을 비추고, 보다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길이 됐습니다.

민주적 가치, 자율적 방역, 사회적 배려, 참여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우리들의 노력이 세계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지남이 되고 있습니다. 연대하고 공조하는 길만이 절대적 성취라는 깨달음도 일깨웠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치유와 극복의 본보기처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비심과 실천행이 빛으로 떠올랐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면서 곧 다시 맞이할 일상의 행복을 위해 평상심을 회복합니다.

우리들의 서원과 정진으로 탐진체를 물리치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열어 갑시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병마와 싸우는 모든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참회하고 서원정진 합시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았지만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축의 환희를 누리고, 기쁨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난 감염자를 양산하면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이 속출하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암울함에 갇혀 꽃 대궐, 봄 마중을 할 계절마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의 전통 봉축행사도 한 달여나 연기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때 절망을 단고, 다시 일어설 수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 파



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스스로 번뇌의 불길을 끄고 고통의 물길을 건너서 무명의 바람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상생의 이해와 즐거움이 넘치고, 장도(長途)의 걸림 없는 부처님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연의 스승이신 부처님이시어 우리들에게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 되게 하소서!

인연이 지중하신 불자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움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덕성이 넘쳐도록 하여 해탈의 기쁨을 알아 갑시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진리가 따로 없듯이 산하대지가 참 생명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대천세계가 법신체이며 우리들의 본래면목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공양을 올려 지혜의 빛과 믿음의 열정으로 병고없는 행복의 등불을 밝힙시다. 고뇌중생을 인도하는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마하 반야바라밀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산에도 들에도 꽃피고 새 우네! 벌 나비 춤추고 만생명이 환희롭습니다.

만유에 평등하시어 두루 하신 부처님! 중생의 원에 따라 청정법신의 화현으로 이 사바세계에 강탄하시었습니다.

“하늘과 땅위에 참 생명들은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내가 모두 편안케 하리라”는 진리의 말씀을 찬탄합니다!

한없는 자비와 복덕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은 무명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만 구족한 지혜를 인간의 몸으로 열어 보여주시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

불교총지종 창종 50년 기념사업 발족식 개최

사업설명, 위원 위촉장 수여, 6월 9일 통리원 반야실



불교총지종 창종 50년을 맞이하여,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계승하고, 이후 반세기를 맞이하는 기념비적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불교총지종 창종 50년 기념사업 발족식'이 개최된다.

오는 6월 9일 오후 2시부터 통리원 반야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50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시작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종단 주요행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각 사업 부문별 소개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

을 위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전국 교구장과 총무, 통리원 집행부 등 종단 주요 스승들과 종무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당초 전국 승직자들과 교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념사업 성공기원 불공 범회로 봉행하려던 것을 코로나 감염 예방차원에서 축소시켰다.

이날 발족식은 기념사업 성공기원 불공을 시작으로 통리원장 인사말, 종단 50년사 발간위원

위촉장 수여, 기념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또 50년사 편찬과 관련하여 특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의미와 목표, 일정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다.

준비 중인 기념사업으로는 현재 원정기념관(본산 총지사 소재)이 새롭게 단장 중이며, 원정대성사의 진영(조상화)을 오는 명도절에 맞춰 봉안할 수 있도록 제작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부터 집필에 들어간 원정대성사의 일대기는 상반기 중 완료되어 출판기념회를 기다리고 있다. 50년의 역사와 문화, 포교 등 발자취와 성과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게 될 다큐멘터리는 지난 5월 불교TV와 제작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기획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50년의 역사책 '불교총지종 50년사'는 승단과 교도가 다함께 동참하여 선대 스승들의 창종 정신과 반세기 종단 역사를 재정립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교도 수계식은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봉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종단은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방명록 작성,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주요 코로나방역지침을 참석자들에게 공문으로 시달했다.

사회복지재단 제1회 정기이사회

2019년도 사무국·산하시설 결산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2020년 제1회 정기이사회가 5월 26일 11시 통리원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2019년도 재단사무국 결산 심의와 산하시설 결산 심의 건으로 재적이사 8명중 5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재단사무국은 최근 강남 다함께키움센터(세곡)와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법인 수탁선정을 설명했다.

종단협, 문희상 국회의장과 환담

'자비로운 마음 정치권에도 꽃 피우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5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회장단은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정각선원을 예방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회장인 원행 스님, 차석부회장인 회성 정사, 부회장인 홍파 스님, 범해 스님, 사무총장 지민 스님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강창일 의원, 부회장인 이진복 의원·이원욱 의원, 간사인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가정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가정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가정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연명의료 24

준비하는 나의 마지막

법상 정사

다양한 연유로 인해 죽음이 임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개는 의식이 없거나 약물치료 등으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료적 처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미리 밝혀두어 자신의 마지막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다. (총지신문 245호, 연명의료23 참조)

근거가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여러 단체에서 만든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 및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알리고 사본 등을 공유한다.

- 의사결정 대리인: 임종과정에 이른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목적으로 처

생명 연장에 관해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 본인을 대신해 의사결정 대리인 지정 가능

치료의 자발적 선택

현대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태에도 각종 의료기기와 약물 등의 조치로 심장박동과 호흡만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과연 이것이 환자의 존엄성까지 지킬 수 있는 조치인지,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고민이 대두하였다.

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지정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생명유지장치의 사용: 본인 스스로 호흡 또는 음식섭취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나 음식공급기구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만을 유지하는 의학적 방법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건강하고 사리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의 본인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의 자신을 위하여 원하는 치료와 원치 않는 치료에 대한 것을 미리 명확히 해두는

- 완화의료: 우울, 불안, 통증, 경련, 호흡곤란, 욕창 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줄이며, 청결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처치를 말한다.



심보이야기 7

법상 정사

첫 번째 능변식(能變識) - 제8식의 명칭 '아뢰야식'

제8식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제1능변식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수 있으며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라는 뜻이다. 그래서 발생순서에서 제8식은 제일 먼저이며, 나머지 심식들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능히 변화를 주도하고 일으키는 심식이라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제8식은 모든 식의 근분이 되는 식이라는 뜻으로 근분식이라고 칭한다.

(瞢)이란 이러한 것이 습관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꾸준히 그것이 배어 들어가서 일정한 효능을 지닌 가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아뢰야식 속에 전환된 가치들을 유식에서는 종자(種子)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종자란 씨앗을 말하고, 미래의 가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붙인 이름이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유식에서는 현행(現行)이라는 용어로 쓰인다. 현

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이라 한다.

제8식은 종자를 저장하는 의미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과거 행위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뢰야식 속에 종자로 저장되고, 이런 저장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 가는 동안 종자의 가능성에 의해서 어떤 여건과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장된 종자의

아뢰야(Alaya)는 '저장하다'

산스크리트어 아뢰야(Alaya)는 '저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저장한다는 말인가? 종자(種子, 산스크리트어 bija)를 저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는 생각과 행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종자로 변해 아뢰야식에 저장된다. 종자를 업이 남긴 흔적, 남겨진 습관적 기운이라는 의미에서 습기(習氣)라고도 한다. 이 종자 또는 습기는 의식이나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 남겨진다. 이 업이 남긴 종자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뢰야식이다.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의식 종자를 저장하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부각

행된 모든 행위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혼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들의 심식 속에 종자라는 가능성으로 저장되고, 다음의 현행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들의 활동, 즉 현행들이 혼수되어서 종자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요약해서 현행熏종자(現行熏種子)라 칭한다.

가능성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는 종자를 아뢰야식 속에 지닌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제8식의 역할은 어떤 심식보다도 종자를 저장하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부각되며 이 심식을 일반적으로 아뢰야식 또는 장식이라고 말한다. 또한 아뢰야식 속에 저장된 종자는 잘 보존되어야 하며, 쉽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종자를 저장하는 아뢰야식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종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몰식(無沒識)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 몰(沒)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이다. 한번 저장된 종자들은 변화는 있겠지만 결코 사라지지 말아야만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결과로써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업장(業藏) 혹은 장식(藏識)

아뢰야식은 모든 일어난 일이나 생각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의식이 아뢰야식이다. 여러 행위가 필름에 찍히듯이 업이 돼 아뢰야식에 전부 저장되게 된다. 그래서 아뢰야식을 업장(業藏=업의 창고) 혹은 장식(藏識)이라고도 한다. 장식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저장하는 심식인데 무엇을 저장하는지 알아보자.

종자생종자와 종자생현행

이것은 모든 행위는 혼수되어서 종자로 저장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번 혼수된 종자는 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저장된 종자는 멈추지 않고 끝없는 현행들의 연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혼수되어지기 때문에 저장된 종자는 다시 새로운 종자로 변모되면서 끊임 없는 변화의 과정을 지속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종자가 새로운 종자로 거듭 태어난다고 해서 종자생종자(種子生種子)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행으로 저장된 종자의 지속적인 혼수에 의해서 새로운 종자가 생겨가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현재의 종자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현행이라는 현실적인 행동으로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 과정을 맞게 된다. 이렇게 현실적 행위로 종자

현행의 결과는 새로운 원인

과거 현행의 결과로서의 종자가 새로운 원인이 되고, 여기에 의해서 현재 현행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아뢰야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 속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종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능력과 작용을 아뢰야식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범사 서강 정사 편

외면의 눈을 의식하고 정진함은
능숙함을 이루지만,
내면의 눈을 의식하고 정진함은
거룩함을 이룩한다.

내마음의 등불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밀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시범사 서강 정사님은 단음사 남해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관성사 주교 인선 02-736-0950	밀인사 주교 록경 02-762-1412	법천사 주교 화령 031-751-8685	벽룡사 주교 승원 02-889-0211	총지사 주교 원당 02-552-1080
시범사 주교 서강 032-522-7684	실지사 주교 덕광 02-983-1492	정심사 02-491-6888	지인사 주교 승효제 032-528-2742	

서울·경인 교구 일동

총의회의장 우인 정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중중제방의 그물망을 흠뜨려서 그 빛을 잃게 하여 질병의 공포는 물론 경제마비, 식량 기근으로 이어지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자비한 마음을 받들어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살리고 나와 내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질 때 제망의 광채는 다시 빛날 것입니다.

화염경에 인드라마는 법계 일체 현상이 서로서로 끝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인드라마의 수많은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어 광채를 더하여 중중무진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코로나 정국에 이 땅에 오신 참뜻은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자만해왔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자연을 지배해오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무참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대승장엄경론에 보살의 도 닦는 법을 설하셨는데 생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염착해서가 아니라 깨우치는데 힘쓰기 위해 생사행을 행하며, 큰 자비로서 번뇌병에 고민하는 중생을 위해 중생행을 행하며, 길들지 않는 마음을 능히 조복하기 위해 자심행을 닦으며, 삼업을 닦고 다스려서 능히 청정하게 하기 위해 삼업행을 행하며, 관하여 법에 뒤바뀐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 생각 바른 행을 위해 반야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도들께서는 항상 생사행, 중생행, 자심행, 삼업행, 반야행을 실천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충청전라교구장 지정 정사

인과는 피할 길 없다



게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인과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은 인과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한테 행한 나쁜 인은 반드시 나쁜 과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들에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64년은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든 나날은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고통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생들은 자연의 순수함과 위대함을 무시한 채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황폐화되어가고, 폐사된 동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독한 바이러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독한 바이러스는 인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인연과 인과의 신비함과 오묘함을 깨달아 모든 일에 참회하고, 정진하시길 서원합니다.

조용히 나와 관련된 인연과 인과를 참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인과와 인연으로 현재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만유로서 이루어지는 오묘한 세계의 모양들은 인연과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착한 원인이 없는데 착한 결과가 있을 수 없고, 악한 원인이 없는데 악한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원인에는 착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상응하게 나타나 조금도 착오가 없는 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것이 인과법칙입니다. 이 인과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꼭 믿어야 합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인연과 인과의 신비함과 오묘함을 깨달아 모든 일에 참회하고, 정진하시길 서원합니다.

사감원장 범경 정사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실천



도 얻을 수 없습니다. 행(行)함이 있을 때 얻음이 있습니다. 행(行)함은 인(因)이요 얻음이 과(果)입니다. 그 행함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뜻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무명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생의 불행은 무지(無知)와 어리석음, 집착과 욕망에 기인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 속에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이 곧 불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행복은 바로 지혜를 닦는 가운데서 얻어집니다. 지혜를 증득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었을 때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그 평화 가 곧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실천을 권선 드립니다. 사무량심(四無量心)은 자비희사(慈悲喜捨)로서 타인을 대할 때 지녀야 할 네 가지의 바른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심(慈心)은 자상함이니 이를 닦아 성내는 마음을 없애고, 비심(悲心)은 동정심이니 이를 닦아 증오심을 없애며, 희심(喜心)은 함께 기뻐함이니 이를 닦아 나쁜 감정을 여의고, 사심(捨心)은 버림이니 이를 닦아 탐욕심을 없애야 합니다.

이들 행(行)함이 행복(幸福)이며, 행(行)하지 않음이 불행(不幸)입니다. 행복(幸福)과 불행(不幸)은 행(行)함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무량심으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훴 옴마니반메훴.
옴마니반메훴.

서울경인교구장 록경 정사

자성불(自性佛) 찾는 날이 되기를



으로 보이는 공간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집주하듯 살다보니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지 못한 전도몽상의 삶을 살아온 결과가 작금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참뜻을 깊이 새기며 공간을 밝히는 연등불이 마음의 등불로 승화 되어 무명에 덮인 마음 구석구석을 밝혀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인 자성불! 찾는 날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서원합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세계에 퍼져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2564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번뇌와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큰 가르침을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홀로가 아닌 연기(緣起)적으로 이뤄졌기에 서로를 인정하는 지혜(智慧)와 배려하는 자비(慈悲)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을 밝히면서 백겁의 회유한 인연으로 부처님 만난 것을 다시 한번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불자답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만사가 성주괴공(成住壞空), 만물이 생주이멸(生住異滅)한다는 진리를 망각하고 아지람이 쫓아가듯이 육안

오늘은 분명히 기쁨이 넘치는 날이건만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나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실천하여 지극한 기도와 정진의 원력이 결집되면 하루빨리 일상의 편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만 불자들이 밝힌 자비광명의 등불은 반드시 온 누리에 비추어 생로병사 고해중생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어 날이 갈수록 깊어가는 갈등 소외의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소시켜 밝고 맑은 청정한 불국토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자여러분! 부처님오신날 밝힌 자비광명의 등불을 인연으로 지구촌의 사람들은 소원이 성취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또한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부산경남교구장 정인화 전수

자비행을 실천합시다



한 자비에서 바른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상임상속의 관계로서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지혜라 할 수 없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에 바탕을 둔 지혜라야 참다운 지혜라 할 수 있으며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정진 수행하는 가운데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에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은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봉축표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지향하셨습니다.

불교는 해탈과 열반, 깨달음을 넘어 자비의 실천을 구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이타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성불, 지혜는 자비에서 나오며, 또

자비심이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아낌없이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인색함과 탐심을 버리는 가운데 자비심은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오신날, 자비를 베푸는 날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훴 옴마니반메훴
옴마니반메훴



대구경북교구장 법상 정사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히자



고 그 결과 신종코로나가 발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며 지혜로서 슬기롭게 생활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업 중생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여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야생동물들과의 접촉이 많아지

살아있는 모든 중생은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억압한다면 대비구세의 큰 서원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마음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불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야생동물들과의 접촉이 많아지

Decorative banner for the 2564th Buddhist Festival. It features a purple and white floral background with a central banner reading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Buddhist Festival 2564). Below the banner are six orange boxes, each representing a temple and its contact information:
1. 만보사 (Manbo-sa): 주교 | 안성, 042-255-7919
2. 백월사 (Baekwol-sa): 주교 | 해광, 042-527-5470
3. 법황사 (Beopgyeong-sa): 주교 | 법우, 062-676-0744
4. 흥국사 (Heunggyeong-sa): 주교 | 지정, 063-224-4358
5. 혜정사 (Hyejeong-sa): 주교 | 진일심, 043-256-3813
6. 증원사 (Jeungwon-sa): 주교 | 정정심, 043-833-0399
At the bottom center, there is a logo for '충청·전라 교구 일동' (Chungcheong-Jeolla District Buddhist Community).

부처님과 부처님 오신날

‘삼계의 일체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유아독존’ 탄생계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일대 선언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로 2020년 올해는 양력 4월 30일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불교계는 음력 윤 4월 8일인 5월 30일로 모든 봉축 일정을 조정해 왔다. 바이러스의 위력은 그 기세를 전혀 꺾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봉축행사는 취소되거나 대거 축소되었다. 아쉬움이 많은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며,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을 돌아보고 코로나 정국에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

탄생 설화와 탄생 계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종교나 비슷하지만 교조에 대한 이야기 들은 시대가 따라 신화적으로 윤색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며 한 손으로는 하늘을,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유명한 탄생계(誕生偈)를 외쳤다고 한다. 그러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

로 존귀하다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부처님의 전기를 전하는 경전 가운데는 이상과 같은 구절 다음에 삼계(三界)고오당안지(三界皆苦吾當安之)라는 구절이 이어지는 것도 있다. 즉 온 세상이 모두 괴로움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부처님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분은 어디에도 없으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세상 사람들을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의 진리를 깨닫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그 ‘나’는 비단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선언은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일대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전법륜, 깨달음을 선포

싯다르타 왕자는 궁전에서 향락의 세월을 보내다가 29세에 노인, 병자, 죽은 자, 수행자를 만나는 사문유관(四門遊觀)의 경험을 한 후 최상의 선(善)을 찾아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다. 출가 후 두 명의 명사가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똬타에게 각각 무소유처(無所有處)와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라는 명상의 경지를 배웠다. 하지만 이 두 명사의 경지가 자신이 찾던 최상의 선이 아님을 알고 스승을 떠나 당시 유행하던 격심한 고행을 6년간 시도한다. 하지만 고행으로도 자신이 추구하던 최상의 선을 이루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선정에 들었다. 삼매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마을의 여인 수자타가 제공한 우유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한 후 완전한 깨달

음에 이르러 붓다가 되었다.

싯다르타는 붓다가 된 후 깨달음의 법을 퍼기로 결심하고, 처음으로 법을 가르칠 상대로 이전에 함께 고행했던 다섯 수행자가 있는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찾아간다. 싯다르타가 고행을 포기하고 사치스런 삶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던 다섯 수행자는 처음에는 붓다를 거부하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

탄신일과 공식 명칭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 부처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말, 최이(崔怡)라는 문신이 팔관회와 연등회를 음력 4월 8일로 옮겨서 함께 행하게 했다고 한다. 1960년대 대한불교조계종이 ‘불탄일’에 대한 불교적 의미를 복원하고, 한자로 되어있는 말을 쉽게 풀어서 사용하고자 ‘부처님오신날’을 만들었다. 한글화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2017년 10월 공식 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됐다.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지 42년만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불교권의 날짜가 다르다. 불교의 중주국인 인도 등지에서 예로부터 4월 8일을 부처의 탄신일로 기념해 왔고, 1956년 11

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 4차 세계불교대회에서는 양력 5월 15일을 부처님의 탄신일로 결정했다. 국제연합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회의의 안건을 받아들여 양력 5월 중 보름달이 뜬 날을 부처님 탄신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은 음력이 아닌 양력 4월 8일을 기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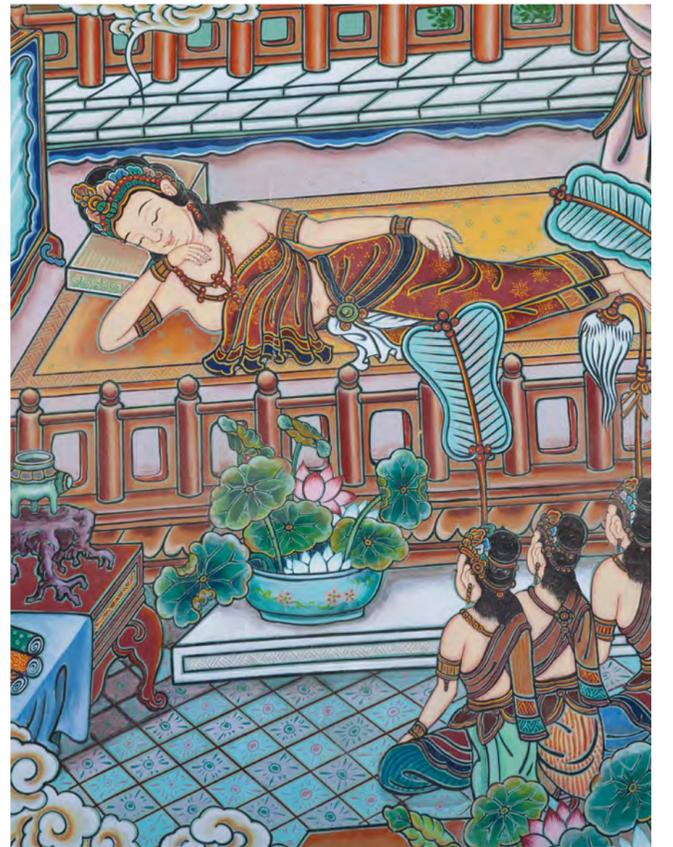
리의 용(龍)이 태어난 부처님을 향수로 목욕시켰다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관욕의식은 고대 인도로부터 유래되었는데, 부처님의 형상을 깨끗이 씻으면 자신의 마음에 쌓인 죄와 번뇌를 씻고 맑고 깨끗해지며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부처님오신날 각 사찰에서 시행하는 관욕의식은 탄생불(誕生佛)을 욕불기(浴佛器) 안에 모셔놓고

1975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로 첫 지정 고려말 사월초파일 팔관회 연등회 시작

관욕: 마음의 죄와 번뇌를 씻다

부처님오신날 행사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관욕(灌浴)의식이다. 불교경전 『보요경(普曜經)』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때 9마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준비된 바가지로 물을 끼얹어서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킨다. 이 관욕의식은 부처님오신날 행하는 연등행사와 함께 2대 행사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박재원 기자



Large banner for 'Bong Chuk' (Buddha's Birthday) 2564. It features a central title '봉축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and a grid of 18 boxe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Buddhist sect with its name, leader, and contact number. The sects include: 관음사 (Gwanimsa), 단향사 (Danhyangsa), 덕화사 (Deokhwasa), 밀행사 (Milsangsa), 법성사 (Bulsangsa), 삼밀사 (Sammilsa), 성화사 (Seonghwasa), 실보사 (Sillbosasa), 운천사 (Ungchonsa), 정각사 (Jeonggaksasa), 일상사 (Iljangsa), 자석사 (Jaseksa), 화음사 (Hwamsa), 동해사 (Donghaesa).

연등회 유래

정성으로 등불을 밝히기 시작, 세계인의 축제로

2020년은 국민안전과 생명 보호가 우선으로 연등회 내년 기약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행되었던 '연등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으로 올해는 전면 취소되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따른 계엄령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1980년도 이후 40년 만이다.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연등회, 올해는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그 역사와 의미를 통해 부처님 탄신을 봉축해 본다.

인도 가난한 여인의 등불

등공양을 올리는 전통은 부처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우경』 '빈녀 난타품'에 부처님 당시의 등공양 모습이 나타나 있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 계실 때의 일로 밤이 깊어 다른 등들은 모두 꺼졌으나, 오직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지극한 정성과 발원으로 밝힌 등불만이 밤이 깊어도 끝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 "이 여인은 그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며, 수미등광여래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정성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 연등의 정신으로 내려오고 있다.

고려시대 국가 행사로 시작

'신라 경문왕 6년(866) 정월 15일과 진성여왕 4년(890) 정월 15일, 황룡사로 행차하여 연등한 것을 간등(看燈)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한다. 불교국가 고려에서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고려의 2대 명절로 정착, 연

등도감이 주관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치렀다. 고려 의종 20년(1166)부터는 연등행사를 초파일에 시행하고 고종 32년(1245)에도 초파일에 연등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보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송유역불 정책이 시행된 조선은 국가 차원의 연등회가 중지됐으나 민간 행사로 명맥이 이어졌다. 초파일 낮에는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저녁에는 집집마다 자녀 수 대로 등을 밝혔다. 거리 곳곳에도 형형색색의 등을 달았으며, 밤에는 온 장안의 남녀들이 몰려나와 장관을 이룬 것을 구경하는 관등놀이를 즐겼다.

행렬에서 세계인의 축제로

1,900년대 초반 해도 서울 시내 광화문통 관장, 조선은행 앞 광장, 장충단 등에 꽃으로 장



사진=불기2563(2019)년 연등회

식한 탄생을 모시고 관불을 하였으며, 집에 등을 달고 저녁에는 사찰에 공양 올린 등에 불을 켜는 관등행사를 하였다. 현대에 와서 1955년 조계사 부근을 도는 제등행렬을 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지금의 연등회 행사로 본격화 되었다. 1976년부터는 여의도광장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연등행렬을 했고, 1996년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연등행렬을 비롯하여, 전통문화마당, 어울림마당, 회향한마당 행사가 추가되어 온 국민의 축제로 발전시켰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연등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중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불교계가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 달 뒤로 변경한 것과 같이 오늘의 위기가 하루속히 종식돼 모든 국민이 평안해지기를 발원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등회는 매년 30여만 명이 참여하는 불교계 최대 축제로 당초 5월 23일 토요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리는 연등법회와 이후 도심으로 이어지는 연등 행렬, 24일 일요일 서울 조계사 앞 100여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체험하는 전통문화마당이 예정되어 있었다. 연등 행렬과 뒤이은 축제는 예년의 경우, 수천 명의 외국인도 함께 참여해 국제적인 행사로 손꼽힌다. 연등회는 지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122호로 지정됐으며, 올해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박재원 기자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1)

지혜의 눈

문명의 발전, 시대를 달리해 비슷하게 반복 한국 근현대사 새롭게 조명 받을 만한 가치

세계사적으로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문명의 전개를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축의 시대'라는 용어로 묶어서 언급하였다.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의 이행기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경제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충족하는 방법이 문명권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이 문화는 구조적으로 짜여 우리의 일상을 이끌고 있는데 그러한 구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라고 한다.

을 기반으로 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으로 어마어마한 자원이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이 산업혁명은 곧이어 프랑스를 거쳐서 전 유럽에 전파되었다. 이 산업혁명이 석탄을 동력원으로 하고 철의 생산으로 특징으로 한다면 19세기 제2의 산업혁명은 석유가 동력원으로 등장하고 화학공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제2의 산업혁명은 후발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곧이어 경제적으로 독일이 영국을 추월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러한 전개과정은 20세기에 들어와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이 전개되었지만 결국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체제의 국제질서가 성립하였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축의 시대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스 문명의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출현하여 서양 사상의 뿌리를 형성하였고, 페르시아 문명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출현하여 바빌론 유수를 거치면서 유대교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인도 문명에서는 브라만교에 대하여 우파니샤드라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전개하였고 그 흐름 속에 불교가 성립하였다. 중국 문명에서는 춘추전국시대라는 동란(動亂)의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이를 제자백가(諸子百家) 백화제방(百花齊放)이란 말로 표현한다. 이런 새로운 사상들은 이전의 고대 문명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등장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경우 인더스 강 유역에 침입한 아리안 족이 인더스 강과 갠지스 강 사이의 인도 평원지대에 진출하면서 많은 도시국가가 세워지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성립하였다. 석가족의 국가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사이에 놓인 약소국이였다.

2차 대전 이후에 동아시아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특히 한국은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진 분단국가로 경제 발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었다. 오직 선진국이란 나라들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전국가적인 역량을 경제 성장에 집중했던 이들 네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정치와 사회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서구문명을 쫓기에 바빴다. 홍콩은 영국의 직할통치,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였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독립된 단위의 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비록 코로나 19의 대응과정에서만 나타난 모습이지만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냈다는 점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는 새롭게 조명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명의 발전은 시대를 달리해서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전개된다고 보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동방무역에 의해 형성된 경제적

칼럼리스트 김태원

Advertisement for the 2564th Buddha Birthday (부처님오신날) featuring a yellow background with lotus flowers and a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41)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16)

범경 정사 (정각사 주교/ 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중생의 마음은 천차만별이고 수 천 수 만 가지가 된다. 그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하기가 그지없다. 여기 중생의 마음을 진흙에 비유하고, 색깔, 땃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심(泥心)

이심은 진흙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인가? 어리석은 마음을 말한다. 『대일경소』에 진흙의 마음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진흙의 마음[泥心]이라 하는가? 이것은 바로 한결같은 무명심(無明心)으로 눈앞의 가까운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무명(無明)이란 글자 그대로 ‘밝음이 없다’는 것으로 지혜가 없음을 말한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밝지 못하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중생을 무명중생(無明衆生)이라 하는 것이다.

밝음은 명(明)으로서 지혜가 있음이요, 어두움은 무명(無明)으로서 지혜가 없음이다. 무엇을 밝고 어둡다 하고, 무엇을 지혜가 있다 없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진리에 대해 밝고 어둡다는 것이요, 진리에 대해 밝은 것이 지혜요, 어두운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이치를 말한다. 즉 우주 삼라만상, 세상의 이치가 진리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

이 지혜다. 따라서 진리에 대해 아는 것이 지혜이며, 진리에 대한 무지(無知)가 무명(無明)이요, 어리석은 것이며, 지혜가 없는 것이다.

『대일경소』에서 ‘무명심을 율(律)에서는 진흙덩이와 같다’라고 하여 진흙에 비유하고 있다. 무명심(無明心)이 곧 진흙의 마음[泥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에서 벗어나야 하듯 진흙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진흙 속에 있는 것은 미혹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흙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다. 깊은 진흙일수록 빠져나오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진흙투성이의 진창에 빠지면 넘어가기 어려워므로 반드시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교량 등을 빌려서야 이를 넘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선지식에게 돌아가 기대어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로써 점차 무지(無知)를 제거하고 도리어 지혜의 성품이 생겨나게 된다.’

방법은 다양하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땃묵에 비유하듯이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수행교설이다. 일체에 대한 이해와 자각, 그리고 사성제를 바탕으로 한 팔정도 수행과 십선업, 육바

라밀 등의 수행교설이 있으며, 계율이나 우리 밀교처럼 다양한 작법과 삼밀수행이 있다. 여러 방편 가운데 지속적인 정진을 통해 자기의 수행방편을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

현색심(顯色心)

현색심은 색깔의 마음이다. 『대일경소』에서 색깔의 마음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색깔의 마음이라고 하는가? 그와 같아지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즉 어떤 색깔로 물을 들이면, 그와 같은 색깔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하면 만약 청, 황, 적, 백 등의 염색에 흰 실을 넣으면 곧 같은 색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역시 그와 같다. 착한 법을 보고 듣고서 그에 따라서 행하고 악한 일을 보고 들으면, 역시 따라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다.’

즉 선지식을 만나면 선업을 배우고 익히게 되지만 악지식을 만나면 악업을 따라하게 된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다. 중생세계에서는 악은 악끼리 만나고 선은 선끼리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비유는 아주 많다. ‘근묵자흑(近墨者黑) 근주자적(近朱者赤) 거필택린(居必擇鄰) 취필유덕(就必有德)’이란 말도 있다. ‘덕을 가까이하는 자는 검어지고 주사를 가까이하는 이는 붉어지니 거처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가리고 나아감에는 반드시 덕 있는 사람에게 가라’는 말이다. 『소학』 「봉우편」 편에 나오

는 말이다.

연탄 배달하는 사람은 손과 얼굴에 검은 색이 묻게 되고, 밀가루 반죽하는 사람은 얼굴에 흰색 밀가루가 묻게 되는 것처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옆에서는 나쁜 것만 배우고, 칭찬과 배려가 넘치는 사람 곁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받게 된다. 이것 또한 공업중생(共業衆生)의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因)이 중요하지만 연(緣) 또한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인연생기(因緣生起)라고 말씀하셨다. 인과 연의 화합으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종자, 씨앗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서 얼마만큼의 영양분을 공급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인이 되고 좋은 연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소』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오직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자증(自證)의 법을 구하는 데는 타인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며, 다른 연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현색심을 다스리는 법이다.’ 결국 수행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말이다.

판심(板心)

판심(板心)은 널빤지, 즉 땃묵의 마음이다. 땃묵은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도구

다. 그러나 이것이 중량을 초과하면 가라앉고 만다. 이를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땃묵의 마음이라 하는가? 능력에 맞는 법만 따르고 그 밖의 좋은 것은 버리는 것을 말한다. 땃묵이 물 위에 떠 있어서 그 크기에 따라 온갖 물건을 실을 수 있는데, 중량을 초과하면 곧 이길 수 없어 끝내 기울어져서 물건들을 쏟아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의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좋은 법을 가려서 취하여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한 가지 법만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이 법만을 행하고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팔재계를 익혀 행하는 데 이를 버리거나 여의지 않으나 다른 좋은 법은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자기가 좋아하는 법이 최고이며, 그래서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법에만 집착하는 마음이다. 이를 벗어나는 법은 넓고 큰 마음으로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광대한 마음을 내어서 보리행(菩提行)을 학습하면, 이것이 판심(板心)을 다스리는 법이다.’ 특정한 가르침과 수행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자랑할 것도 못된다.

수행은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것이지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청정함은 몸과 입과 뜻에 있으며,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의 실천에 있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제자에게 배워 성취한 랏나까라산띠

말법시대 초심의 정진을 잊지 말라 교훈

랏나까라산띠(Ratnākaraśānti, 970-1045)는 산띠빠(Shantipa)라고도 하는데 11세기 활동한 스님으로 위끄라마실라사 승원대학의 주지를 맡았고, 특히 스리랑카에 불교를 처음 전한 분으로 유명하다. 특히 ‘말세의 지자’로 알려질 만큼 특출했고 후기중관파의 학장이자 밀교의 아사리로서 많은 저술을 남겨 지금도 티벳대장경에 「반야

경」과 「해와즈라판뜨라」, 「구하야삼마자판뜨라」, 「마하마야판뜨라」의 주석들을 전한다. 산띠빠는 랏달마왕에 의해 불교가 파괴된 티벳에 불교부흥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은 적지 않다.

「84성취자전」에 따르면 산띠빠는 데와빨라왕의 통치지역인 마가다출신이었는데, 당시 실론에는 불교가 아

직 전해지지 않았으나 실론의 왕인 까빠나(Kapina)는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마가다의 산띠빠의 명성을 익히 듣고 사신을 보내어 산띠빠를 초청하기에 이른다. 당시 산띠빠는 노쇠한 몸으로 위끄라마실라사 승원대학에서 지도하고 있었는데 사신이 전한 왕의 간곡한 요청에 마음이 움직여 건강한 2천의 승려를 거느리고 왕과 코끼리에 경전을 얹어 나란히, 오단따부리, 라자그리

하, 붓다가야 등을 경유해 도착하여, 왕과 귀족의 극진한 환영을 받고 실론에서 불법을 가르쳤다.

3년이 지난 후 산띠빠는 위끄라마실라사 승원대학으로 복귀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는데, 산띠빠는 중간에 라마나빠라까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라메슈와라라는 지역을 경유했다. 여기서 푹제빠(Тоцепа)라는 제자를 만나 가르쳤다. 산띠빠는 마침내 위끄라마실라사 승원대학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산띠빠는 나이가 100세에 달해 노쇠한 몸으로 앞을 잘 볼 수 없었고 음식도 요거트와 설탕만으로 버텼으며 의식은 언제나 선정에 들어 있었다.

12년이 지나 제자 푹제빠는 열심히 수행하여 법신을 얻었으며 천신과 천인들은 그를 금강살타로 숭앙하였다.

푹제빠는 “나는 스승 산띠빠를 만나기 전에는 토굴을 판다고 산의 땅을 판다. 내가 성취한 다음에는 나는 마음의 산을 판다고 이룩고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푹제빠는 내가 존경하는 분은 스승인 산띠빠 밖에 없으며 6개월의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스승 산띠빠를 만났다.

산띠빠는 처음에 푹제빠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는 누군가?” 물었고, “저는 푹제빠입니다.” 답하자 “나는 제자가 너무 많아 그대를 잘 모르겠다.” 하였다. 그러나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마침내 산띠빠는 푹제빠를 알아보고, “제자는 공부하여 무엇을 얻었는가?” 물었을 때, 제자는 “마하무드라 수행을 하여 법신을 성취하였습니다.” 답했다. 이때 산띠빠는 “나는 지금까지 강의는

많이 했지만 수행할 기회는 별로 없어 아직 진실을 만나지는 못했다.”며, 푹제빠에게 자신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푹제빠는 스승에게 법신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산띠빠는 마침내 마하무드라의 최고 경지에 이르러 마침내 다가와 다끼니가 사는 정도에 도달하였다.

산띠빠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도권의 최고대학에서 존경받는 학장이었다. 어쩌면 보잘 것 없는 시골에서 이름 모를 제자가 찾아와 성취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산띠빠는 진실에 도달하는 길을 존중 제자에게 물을 만큼 말년에는 열려 있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서울 · 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 김은숙
총무 | 김옥인, 양재범

부산 · 경남교구 신정회

지회장 | 류길자
총무 | 신혜영, 조향선

대구 · 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 황월분
총무 | 이귀선

충청 · 전라교구 신정회

지회장 | 민순분
총무 | 배정임

마니 합창단

단장 | 최해선

만다라 합창단

단장 | 이상록

금강 합창단

단장 | 곽노선

부림 합창단

단장 | 조정애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초등생 돌봄 최초 운영

강남구 다함께키움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이하 사회복지재단)과 강남구 다함께키움센터(세곡)이하 키움센터)가 지난 5월 21일 관리 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재단이 그동안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럿 운영해왔으나,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국공립 돌봄센터 수탁은 사회복지재단 최초다. 또 이날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 위탁체로도 선정이 되었다. 복지센터는 이용 대상이 성북구 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여가 복지시설이다.

강남구는 지난 4월 초등학생 돌봄사업으로 '강남다함께키움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5월 11일 수탁자 심사 선정에 참여해 5년간 운영 수탁을 받았다. 이로써 사회복지재단은 키움센터 관리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초등학생 돌봄에 관한 업무 일체를 맡게 됐다.

강남구 방고개로 231번지 웨비리타운에 위치한 키움센터는 강남구가 초등학생 돌봄 해소를 위해 아동과 부모중심의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준비된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방과 후 문화·예술·스포츠 등 학습·체험, 건강·안전, 일시·긴급 돌봄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이밖에도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이 주요 사업이다. 키움센터는 교직원 4명, 어린이 20명 정원에 179.95m2 규모로 7월 개소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성북구립 실버센터는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88(석관동)에 2009년 7월에 설립된 곳으로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300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정보화교육실, 건강증진실, 친목도모실, 배움교실 등을 열고 노인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여가 사회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맡아 5년간 운영 예정이다.

시집을 내면

주말 오후, 시인들이 보내준 시집을 읽는다. 시인들이 서로 시집을 주고받는 건 아주 오래된 관행이다. 나도 두 번째 시집에 이어 6년 만에 세 번째 시집 『홍연, 선잠』을 내고 많은 시인에게 사인본 시집을 보냈다. 맨 처음 할 일은 정확한 주소 파악, 그래야 다시 보내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내온 시집 봉투에서 주소만 잘라 보관하는 것인데, 6년 만에 시집을 내다보니 이 주소도 믿을 게 못 된다. 시인들은 생각보다 자주 이사하는 편이다. 할 수 없이 한 문예지의 발송리스트와 한국시인협회 주소록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도 모르는 시인들은 문자와 카톡, 페이스북 메시지로 주소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사실 보내는 것도 일이다. 일일이 사인을 해야 하고, 더러는 짧은 글이나 시구를 적기도 한다. 낙관도 적어야 하고, 봉투에 주소를 쓴 다음 봉투에 한다. 무거운 책을 우체국까지 옮기는 것도 난관이다. 대부분 몇 번 나눠 보낸다. 이번엔 내가 사인을 하면 팔이 낙관을 찍고, 아내가 봉투를 붙였다. 우체국 발송 때는 아들이 도와줬다. 가족 덕분에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다.

시집을 보내도 대부분 답장이 없다.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다. 시집을 받고 잘 받았다고 답장한 경우보다 안 한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이름도 모르는 시인들이 시집을 보내왔을 때 대체로 그랬던 것 같다. 물론 한 경제신문에 신간시집 서평을 연재하고 있으니 써달라고 의미로 보내오는 것까지 일일이 답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읽다가 괜찮으면 답장 대신 불속 서평을 들이밀기도 한다.

기억에 남는 답장이 있다. 한 원로시인은 시집에서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만년필로 써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손 편지를 보내왔다. 달필이다. 글씨는 사람을 닮는다. 편지 곁본은 철 지난 달력을 재활용했다. 그 정성에 고맙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또 다른 원로시인은 시집 전체에 대한 평가 '이런

시가 좋았다'며 시 제목을 적은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다.

어이없는 경우도 있다. 첫 시집을 냈을 때의 일이다. 같은 잡지 출신인지라 시집을 보냈다. 며칠 후 "왜 나한테 시집을 보냈나요."하며 메일이 왔다. 당황스러워 아무 답장도 못 했다.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될 터인데 굳이 항의의 메일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 후 어지간해선 친분이 없는 시인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는다.

반대로 "나한테 왜 시집을 안 보내냐, 많이 서운하다"고 따질 땐 참 곤란하다. "정신이 없어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를 하고 시집을 보내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시집을 받으면 서점에서 1권쯤 사주는 게 예의지만, 그리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책을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나, 시집 한 권 달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들은 책이 공짜인 줄 안다. 시집을 내면 출판사로부터 10~20부쯤 받는다. 초판 10%의 인세를 시집으로 받는다. 1000부를 찍는다면 100부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나에게 시집을 보낸 시인에게 보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여 출판사에 필요한 수량만큼 책값의 70%에 구입한다. 그런 상황에서 시집을 달라고 하면 참 난감하다.

다는 아니지만, 시집을 내면 출판기념회와 북 콘서트를 한다. 나는 두 번째 시집을 내고 음식집을 빌려 출판기념회를 했다. 한 100명쯤 왔다. 축하와 시 몇 편 낭독하고 놓고 마신다. 남은 몇몇은 2차와 3차, 노래방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꼬박 날밤을 새웠다. 이번에는 북 콘서트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했다.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시집을 읽는다. 인상 깊은 구절에 밑줄을 친다. "나의 비밀은 고독했고 참회는 완전했지만 너를 죄인에게 할 고백을 위해// 아주 짧은 말 하나를 눈물방울처럼 다듬어서 간직하고 있어"(이운진, 「고백을 위해」). 그렇게 하루가 저문다.

시인 김정수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도연기’ 꼭 읽어야 할 화두 참선의 교과서



고우 스님 법문 / 박희승 정리
판형 127x197 / 320쪽
발간일 2020년 5월 15일
정가 14,000원
출판사 어의문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스님은 화두 수행법을 통해 양변의 집착에서 벗어나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자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 설명하며 화두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우 스님은 김천 청암사 수도암으로 출가해 당대 선지식인 항곡 선사가 주석한 묘관음사에서 첫 안거 수행을 한 이래 평생 참선의 길을 걷고 있다. 문경 봉암사에 들어가 조계종 종립선원의 기틀을 다졌으며, 현재는 봉화 문수산 금봉암에 주석하고 있다.

이 책을 스님과 함께 펴낸 박희승 씨는 20년 가까이 고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불교인재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생활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싯다르타 왕자가 출가하여 중도를 깨달아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 보인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내 밖의 절대자에게 구원을 의지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이 스스로 중도를 깨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43쪽)

우리 시대의 원로 선지식인 고우 스님이 대중들에게 처음 내놓는 행복 지침서,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고우 스님의 가르침과 법문을 △부처님의 삶과 정견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중도 연기 △일상에서의 화두 참선법 △화두 참선의 효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대중들이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합니다

이사장: 인선 정사
교장: 송인근
교감: 김진화
행정실장: 법선 정사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Tel. 051.555.4456



욕망의 파괴성과 허무함을 경험하다 <궁중 잔혹사-꽃들의 전쟁>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충신왕이 큰아들을 죽였고, 조선시대에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16대 왕 인조 또한 아들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는 왕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처럼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보면, 아버지에 의한 독살설이 유력합니다.

JTBC에서 개국 초기 방영했던 <궁중 잔혹사 - 꽃들의 전쟁>은 인조(이덕화)의 소현세자 독살설이 주 골격입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정성운)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고, 만약에 임금이 되었다면 분명 성군이 되었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조는 이런 소현세자를 죽였습니다. 소현세자가 자신의 권력에 방해요소라고 본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청나라 왕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청나라에서 언제든 자신을 밀어내고 세자를 왕위에 앉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세자를 의심했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조가 자신의 죽음이 4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들과 머느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에 휩싸였을 때 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통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에 오직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장남인 소현세자와 머느리, 그리고 손자 둘까지 죽였습니다. 욕망이 얼마큼 부정적 감정이고 인간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가족을 죽인 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아들을 죽인 임금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양심으로부터도 도망가고 싶었는지 후궁 조귀인(김현주)이 권하는 아편에 중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욕망은 자기 아들도 죽이고 결국 자신도 죽인 것입니다.

이는 인조의 후궁 조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궁중에 들어온 한낱 후궁인 그녀가 이런 욕망을 가지면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조귀인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인 승선군 위에는 소현세자도 있고, 봉림대군도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소현세자와 빈궁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조는 조귀인과 마찬가지로 소현세자를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아들을 죽이고 갑자기 망가졌고, 결국은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조귀인이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그녀의 꿈도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조귀인은 인조의 죽음 후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만약에 소현세자가 죽고 4년 후 자신 또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귀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왕 위에 올리려는 무모한 욕망 같은 건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인간이 갖는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애써 통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욕망의 노예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의 정하연 작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주로 드라마를 썼습니다. 욕망이 어떻게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까지 파괴하는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숨 가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을 통해 욕망의 파괴성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김은주 작가

사회적 거리두기 '불교 영화' 관람으로 극복 부처님오신날 '아홉스님' 개봉, 고전도 즐겨볼 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출이 줄어드는 날들이 많아진 요즘, 한국 영화계에서 최근 몇 년간 스크린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불교 소재 영화를 관람하며 부처님 오신날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 극한 상황 속에서 무사히 90일 천막 결사를 마친 아홉 스님의 수행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 (감독: 윤성준)이 지난 5월 27일 전국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개봉했다. 지난해 겨울, 위례 상월선원에서 '아홉 스님'은 난방도 되지 않는 천막 안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옷 한 벌, 목욕과 사발 불가, 외부 접촉 불가, 묵언,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승적에서 제외된다는 일곱 가지의 청규를 지키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자유가 제한되는 시기에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방향을 나아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삶의 행복은 내려놓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러준다.

2018년에 개봉한 '무문관' (감독: 박대원)은 2013년부터 감포 무일선원에서 11명의 스님들이 1,000일 동안 무문관 수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스님은 폐쇄된 공간에서 하루 한 끼의 공양만 하며, 화두 하나만 들고 수행하는 장면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와 물질 위주의 경쟁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볼게 만든다. 또한 앞서 말한 '아홉 스님'의 제작을 기획한 KBS미디어 김형진 PD는 "당시 스님들의 무문관 수행을 보고 큰 감명을 받

아 아홉 스님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구 스님들의 수행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수행 과정을 담은 영화도 있다. 2013년 5월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 (감독: 이창재)는 1년에 단 두 번만 문이 열리는 비구니 수행도량 영천 백흥암에서 불교에 귀의한 스님들의 생활을 관찰적 시선으로 담아내며,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스님들의 일상을 진솔하게 전한다.

고전 영화 중에서 현재까지도 명작이라 불리는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감독: 배용근)은 1989년 제작된 불교 영화다. 뛰어난 작품성과 아름다운 영상미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 2019년

에 '한국영화 100년사 10선'에 선정된 이 영화는 한 동자승의 눈을 통해 삶과 죽음, 세속적 욕망과 깨달음의 세계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최초의 한국 불교 영화 '마음의 고향'을 리메이크하여 2014년에 개봉한 '내 마음의 고향' (감독: 박영철)도 원작의 느낌을 살려 순수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문예영화이다. 함석덕의 희곡 '동승'을 원작으로 한 '마음의 고향'은 1949년 개봉되었지만 6.25 이후 필름이 유실되었다가, 수십 년이 지나고 다시 세상에 알려지며 박영철 감독에 의해 재탄생 되었다. '내 마음의 고향'은 어려서 절에 버려진 동자승 도성의 이야기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도성에게 생기는 갈등과 새로운 운명과 마주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전서호 기자

불교서적 월간베스트

5/1 ~ 5/3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 / 김계윤그림	불교신문사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4	넓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아마니테초시 / 최성현	불광출판사
6	숫타니파타 (빠알리대장경 / 쿤다까니까야)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7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유선경 / 홍창성	운주사
8	이따따까 (빠알리대장경)	각목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고우스님 / 박희승	어의문화
10	마음이 아플면 불교 심리학	잭 콘필드 / 이재석	불광출판사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4월 21일 ~ 5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법상	5/20	20,000
관성사	김사룡	4/27	20,000
	인선	5/20	20,000
관음사	김정희	4/29	10,000
	해정	4/24	10,000
기로스승	상지화	5/20	10,000
	수중원	5/20	10,000
	밀공정	5/20	10,000
	총지화	5/20	10,000
	법수원	5/20	10,000
	선도원	5/20	10,000
	법지원	5/20	10,000
	일성혜	5/20	10,000
	사홍화	5/20	10,000
	안주화	5/20	10,000
단음사	남영애	5/4	30,000
	김진화	5/1	10,000
	송인근	5/20	10,000
	법선	5/20	10,000
동해사	록경	4/22	10,000
	법수연	4/22	10,000
밀인사	김재영	5/11	20,000
	김강미자	5/11	10,000
백월사	김강미자	5/11	10,000
법천사	반야심	5/4	10,000

법황사	유승태	5/3	10,000
벽룡사	승원	5/20	10,000
	묘원화	5/20	10,000
벗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5/4	50,000
사원명 무기명	나석원	4/27	20,000
	이진승	5/4	10,000
	이형근	5/11	10,000
	박필남	5/15	10,000
	김갑선	5/19	10,000
	정순득	4/27	10,000
수인사	관득	4/28	10,000
	연화법	4/28	10,000
	유승우	5/18	10,000
	이도현	5/18	10,000
	이서현	5/18	10,000
	덕광	5/20	10,000
실지사	보현	5/20	10,000
	진금선	4/27	5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하재희	4/27	50,000
	구미자	5/4	10,000
일원어린이집	최자영	5/7	10,000
	이현직	5/11	10,000
일원어린이집	도우	5/11	10,000
	지현	5/11	10,000
자석사	변순개	5/10	10,000

정각사	안한수	5/15	10,000
지인사	승효재	5/18	10,000
	이지희	4/24	50,000
초록어린이집	강혜란	4/27	10,000
	이미자	5/6	10,000
총지사	무명씨	5/4	50,000
	최영아	5/15	10,000
	원당	5/15	10,000
	묘심혜	5/15	10,000
	김정환	5/15	10,000
	홍수민	5/18	10,000
	박정희	5/18	10,000
	신용도	5/18	10,000
	이수경	5/18	2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4/28
화음사	무명씨	5/6	10,000
	강승민	5/11	5,000
	최영미	5/11	50,000
	무명씨	5/15	10,000
	강점미	5/15	10,000
흥국사	우인	5/18	10,000
	보명심	5/18	10,000
	지정	5/18	2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5/11	50,000

카네이션 꽃의 향연, 5월은 감사의 달

아버이 날, 스승의 날, 관불·현화 행사 이어져



서울경인지회 신정회가 지난 5월 13일 강원도 정선에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 사원에서는 아버지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부산 총지사(주교: 원당 정사)는 5월 10일 자성일

법회 후 아버지날을 기념하여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부모의 은혜' 합창과 함께 나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기렸다. 또 이날 신정회(회장: 최영

아)도 스승님들께 감사의 케이크를 전달했다. 부산 정각사(주교: 법경 정사)도 이날 법회에서 스승들이 직접 참석한 교도들 가슴마다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 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경인지회 신정회(회장: 김은숙)가 지난 5월 13일 강원도 정선의 로미지안 가든 수목원에서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공 종령 예하와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현직 스승 및 기로스승과 교도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교도들은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현화와 연주 공양을 올리고, 음악 명상과 관불행 사를 가졌다.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대전 만보사 신정회(회장: 민순분)도 만보사 스승을 초대해 공양을 올리고 스승의 건강과 안녕을 서원했다.



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 사원에서는 아버지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총지사 아버지 날 (왼), 정각사 아버지날 (중앙), 만보사 스승의 날 (우)



"지혜와 참회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부산 정각서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봉행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산 정각사(주교: 법경)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정각사 교세발전과 교도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봉축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법경 정사는 점등식 법어를 통해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실천'을 권선하면서, "자비희사(慈悲喜捨)로서 타인을 대할 때 지녀야 할 바른 마음가짐으로, 자심으로 성내는 마음을 없애고, 비심으로 증오심을 없애며, 희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사심은 버림이니 사무량심으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고 설교했다. 또 부산경남지회 류길자 지회장은 "저희들이 올리는 이 등불로써 중생들의 미망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 영원한 지혜와 참회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발원했다.

자성일 법회 후 12시에 봉행된 이날 점등식은 주교 법경 정사를 비롯한 정각사 스승들과 기로스승 해정 정사,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 신정회 정인숙 회장, 만다라합창단 이상록 단장 등 교도 1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조용하면서도 환희심이 가득한 가운데 여법하게 치러졌다.

서울·경인교구 군부대 봉축위문품 전달

먹거리, 생필품 등 국군장병 600여명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울·경인교구와 신정회가 호국비룡사 25사단 영의 법당에서 국군장병 봉축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서울·경인교구와 신정회가 5월 26일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국군장병 봉축 위문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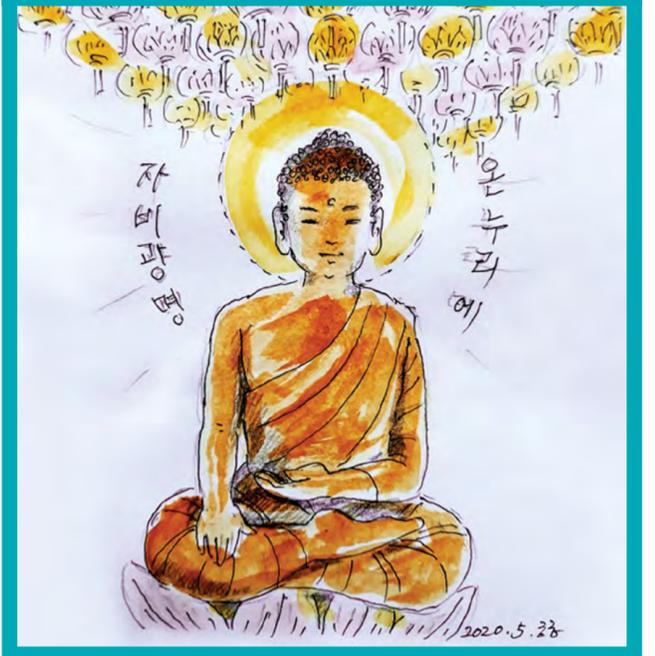
서울경인교구장 록경 정사를 비롯 신정회 김은숙 회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송령호 이사, 신정회 교도 등 참석자들은 호국비룡사 25사단, 호국광명사 28사단, 호국육화사 5사단 영의법당을 방문하여 손 세정제와 마스크팩 등 생필품과 떡과 음료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위문품은 불교총지종을 비롯한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등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뜻 있는 종단들과 군불교포교단 일불회가 심시일반으로 동참하여 마련한 것으로, 총 600여명의 군인들 앞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록경 정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외출과 휴가가 중단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을 위로하기 위해 불교총지종이 호국불교 대표 종단으로써 물품 전달을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교도들과 더불어 군포교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전서호 기자

총지스케치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총지신문과 위드다르마 후원에 감사드리며 매일여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서원합니다.

- | | | | | | | | | | | | | |
|-----|-----|--------|-----|-----|-----|-----|-----|-----|-----|-----|-----|------|
| 강민두 | 강승민 | 강점이 | 강정자 | 강혜란 | 곽노선 | 곽방은 | 관 득 | 구미자 | 권도연 | 권순갑 | 김갑선 | 김강미자 |
| 김덕원 | 김도연 | 김민준 | 김봉래 | 김사룡 | 김성민 | 김송자 | 김양숙 | 김윤서 | 김은숙 | 김재영 | 김정환 | 김정희 |
| 김종철 | 김진화 | 김희원 | 나석원 | 남영애 | 덕 광 | 도 우 | 록 경 | 류경록 | 류승조 | 묘심해 | 묘원화 | 밀공정 |
| 박정희 | 박필남 | 반야심 | 배도련 | 법 상 | 법 선 | 법수연 | 법수원 | 법지원 | 변순개 | 보명심 | 보 현 | 사홍화 |
| 상지화 | 서금엽 | 선도원 | 손경옥 | 손재순 | 송인근 | 수증원 | 승 원 | 승효제 | 시각화 | 신용도 | 안중호 | 안주화 |
| 안한수 | 양진윤 | 연화법 | 오순자 | 오승현 | 오채원 | 오현준 | 우 인 | 원 당 | 유광자 | 유승우 | 유승태 | 유정식 |
| 이도현 | 이미자 | 이민선 | 이서현 | 이수경 | 이영재 | 이인성 | 이지희 | 이진승 | 이현직 | 이형근 | 이혜성 | 인 선 |
| 일성혜 | 일심정 | 장민정 | 장승엽 | 장정원 | 정순득 | 정재봉 | 정화연 | 주건우 | 지 정 | 지 현 | 진금선 | 진일심 |
| 총지화 | 최상관 | 최순기 | 최영미 | 최영아 | 최유정 | 최자영 | 최재실 | 하재희 | 한경림 | 한미영 | 한영희 | 해 정 |
| 허지용 | 홍수민 | (가나다순) | | | | | | | | | | |

총기 49년 불기 2564년

 불교총지중

時時마다 부처님 마음 處處마다 건강한 세상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실천밀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	령	법공 대종사
통	리	인선 정사
중	앙	우인 정사
사	감	법경 정사
원	장	

